

# 페리 필립스 박사, 역사지리학 개론:

## 2장 - 구릉지대

안녕하세요, 저는 페리 필립스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지리, 두 번째 강의인 산악 지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중심 무대인 산악 지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중간 지대'라고 설명했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광활한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논의했던 흥미로운 기후 패턴을 불러일으켰지만, 또한 그 지역은 북쪽의 인구 밀집 지역과 남쪽의 인구 밀집 지역 사이에 위치한 땅이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국제 제국들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했고, 이집트 또한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적 구역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중심 지역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안 평야가 있는데, 해안 평야는 남쪽의 블레셋 평야, 북쪽의 샤론 평야, 그리고 아코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형 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두 번째 지형 구역은 이스라엘 땅을 가로지르는 분홍빛 지역을 따라 뻗어 있는 중앙 산맥입니다. 마치 중앙 척추처럼 이스라엘 땅을 관통하고 있죠. 그다음에는 지구대(Rift Valley)라는 깊은 분지가 있습니다. 이 분지는 터키에서 시작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사해까지 이어지고, 홍해를 거쳐 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까지 내려갑니다.

동쪽으로는 리프트 벨리 동쪽에 위치한 높은 산맥인 트랜스요르단 산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트랜스요르단 산맥에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농업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 사막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진 다섯 가지 지형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명칭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스요르단(Cis-Jordan)은 요르단 계곡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트랜스요르단(Transjordan)은 요르단 계곡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제 산악 지대의 지도를 통해 이러한 명칭들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이 보이네요. 잘 표시되어 있죠. 남쪽으로는 유대 산악 지대가 있고, 그곳의 중심 도시는 헤브론입니다.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산악 지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므낫세 지파의 산악 지대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산악 지대 바로 사이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중앙 베냐민 고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구릉지대보다 지형이 약간 더 평평하고 낮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릉지대의 지형적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이 지역은 단단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꽤 단단 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석회암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지역의 구릉 지대를 이루는 석회암은 매우 단단한 석회암입니다. 다른 돌처럼 쉽게 침식되지 않지만, 침식되면 붉은색의 비옥한 토양으로 변합니다.

이 단단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구릉 지대의 또 다른 특징은 샘이 많다는 것입니다. 계곡에서는 지하수가 샘으로 솟아 납니다. 신명기 8장과 11장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 구절들은 그 땅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토양, 골짜기, 샘물, 그리고 땅에서 구리를 캐낼 수 있고 바위에서 철을 캐낼 수 있다는 점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등성이, 매우 깊은 골짜기, 그리고 자연적인 계단식 경작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지형이 그 땅의 농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곡이 너무 깊어서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좁고 깊은 계곡으로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곡을 가로지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악 지대에서는 어떻게 이동할까요? 능선을 따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발달합니다.

농업은 이 단단한 석회암 지대의 계단식 경작지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가 재배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야자수 같은 다른 작물도 자라고, 때로는 밀과 보리도 재배 됩니다. 문화적으로 이러한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욱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산악 지대에서 제가 말하는 것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계단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계단식 지형입니다. 산악 지대에서 단단한 석회암이 이렇게 풍화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70년대에 처음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면서 이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했던 거 기억하세요? 마치 거인이 언덕에 계단을 깎아 놓은 것 같았어요. 거인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실 이건 단단한 석회암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여기 근처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붉은 흙이 확연히 보입니다. 이 나무들은 올리브 나무이고, 계단식 밭이 어느 정도 정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흙에서 돌을 좀 파내야 하는데, 그 돌들을 가져다가 계단식 밭 가장자리에 놓고,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작은 돌담을 쌓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계단식 밭 현상이 나타나는데, 농부가 돌을 쌓아 흙을 막아주는 돌담을 만들어 그 위에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길도 능선을 따라 나 있고, 자세히 보면 능선 꼭대기에 작은 마을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산등성이 꼭대기일까요? 그곳에서는 의사소통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 산악 지대에 대해 좀 더 역사적인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대 산악 지대의 중심 도시는 헤브론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 도시는 유대 산악 지대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이 바로 그곳 출신이거나,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을 때 그를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압살롬이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 땅을 구입한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도피성이었고, 다윗 왕의 첫 번째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에 오르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가 돌아와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빼앗았습니다.

물론 또 다른 중요한 도시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또한 다윗 왕조의 후손인 위대한 왕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곳은 테코아입니다. 이곳은 광야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곳은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한동안 피신했던 마온과 카르멜과도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럼 이 도시들을 염두에 두고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유다 지파의 경계 바로 옆에 있지만, 실제로는 베냐민 지파 지역에 속합니다.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또 다른 도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할 때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32km(2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다른 지역들, 즉 지프, 카르멜, 마온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곳은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산지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곳은 매우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벤자민의 산악 지대죠. 무엇보다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은 고원 지대입니다. 주변 언덕들보다 약간 평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베냐민 지파는 북쪽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가 사는 산악 지대보다 약간 낮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곳이 일종의 안장점과 같습니다. 이 안장점 덕분에 트랜스요르단 지역에서 요르단 계곡을 가로질러 베냐민 산맥을 넘어 해안으로 이동하는 가장 합리적인 동서 이동 경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북으로 뻗은 능선 루트는 주요 동서 연결 루트와 만나는데, 이 두 루트는 바로 중앙의 베냐민 고원에서 만납니다. 따라서 이곳은 이스라엘 중앙부를 이루는 산맥의 중심부를 따라 뻗어 있는 주요 남북 루트이고, 이곳은 동서 루트입니다.

그리고 그 교차로는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도시로는 예리코가 있습니다.

에리코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방황 끝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디딘 곳입니다. 또한 에리코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뒷문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정에서 에리코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에리코는 예루살렘의 뒷문입니다. 베델은 북쪽에 있으며 에브라임 지파와의 경계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베델은 아브라함이 땅에 들어올 때와 그 후 야곱이 땅에 들어올 때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족장 시대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게바와 미크마쉬는 그곳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에 위치한 주요 도시로는 기브아, 라마, 미즈바가 있습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왕궁이 있던 곳이자 그의 고향입니다.

케피라, 키르얏 예림과 함께 기브온 사람들의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주변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해오자 이를 지키기 위해 큰 전투를 벌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곳이 왜 매우 중요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제르는 서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중심부에 위치한 여러 도시들의 복합체 중 하나입니다.

자, 역사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요. 제가 언급했던 정복에 대해서요.

기브온 성읍들과 그 위치. 이는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왕이 왜 이 성읍들이 정복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그토록 염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휘하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왕정으로의 전환기입니다.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중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라마였습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던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울 왕이 통치했죠.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브아는 때때로 사울의 기브아라고도 불립니다. 기브아라는 마을이 있어서 헛갈리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브아라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게바라는 지명도 있어요. 이 모든 지명을 헛갈리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모두 히브리어 어근에서 유래했는데, 그 어근이 '언덕'을 뜻하는 이유는 지명들이 모두 언덕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과 그의 갑옷 담당관은 게바와 미크마쉬의 지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왕국 분열 이후 이 지역에는 라마라는 곳도 지속적인 전투의 현장이었는데, 이곳은 주요 남북 및 동서 도로의 교차로였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벤자민 고원 중앙 지역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벤자민 부족 지역을 보세요.

에 다른 도시 몇 곳을 더 추가했어요. 바로 북쪽에 있는 사울의 기브아와, 거기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라마입니다.

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3마일, 어찌면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역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곳은 베냐민 고원 중앙 지역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평한 지형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미츠바, 동쪽에 게바, 남쪽에 기브아, 서쪽에 기브온이라는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브온의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베냐민 지파 중앙부에 있는 교차로 때문에 극도로 분쟁이 심한 지역입니다. 서쪽으로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기브온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서쪽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동서로 오가는 사람들에 대해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역대기하 16장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북쪽 왕 바티아가 내려와 라마 성을 요새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겠죠. 자, 그래서 뭐 어찌라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마는 남북 도로와 동서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 왕이 내려와 남쪽 왕 아사에 대항하여 그 지역을 요새화하자, 예루살렘의 아사 왕은 북쪽으로 향하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티아와 직접 전쟁을 벌이는 대신, 아람 왕들 중 하나인 시리아 왕에게 칙령을 보내 북쪽에서 바티아를 공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바티아는 라마 지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즈 바로 옮겨 라마의 매우 중요한 교차로를 개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베냐민 고원의 중심부이며, 기브온은 이 고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이 사진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아침, 기브온 근처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 계곡에 이슬이 맺히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죠. 그때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지 아니면 다른 곳을 보고 돌아올지 고민했는데, 찍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왔을 때는 안개가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해가 뜨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언덕이 있긴 하지만, 이 지역은 다른 산악 지대에 있는 계단식 경작지에 비해 상당히 평평하고 이동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기브온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브온에는 큰 연못이 있는데, 아마도 사무엘하 2장에 언급된 그 연못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벌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계단을 통해 흥미로운 수리 시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체 관광객들을 기브온으로 안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정치 상황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을 데려갈 수 없었지만,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곳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부 벤자민이었고, 여기는 동부 벤자민입니다.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횡단 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동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곳은 와디 무크마스 이고, 저 멀리 보시면 아주 자세히 보면 사해가 보이고, 더 자세히 보시면 이쪽 위쪽으로 트랜스요르단의 운곡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유대 광야라고 불리는 지역의 바로 가장자리에 서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매우 험준한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미크마스 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있죠.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요나단과 그의 갑옷 담당관의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요나단과 그의 갑옷 담당관은 미크마스 쪽으로 뺀어 있는 험준한 산등성이를 따라 올라가 블레셋 요새를 함락시켰고, 그의 용맹함 덕분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

네,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산악 지대입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산악 지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을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겠습니다. 규모를 가늠해 보자면,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대략 7마일 정도 됩니다.

유다 지파처럼 험준한 지형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에브라임 지파의 산들이 베냐민 지파보다 약간 더 높은 고도에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해발 약 850미터(2,800피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해발 약 3,000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남쪽으로 헤브론까지 가도 다시 약 3,000피트 높이에 이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는 고도 차이가 큰 안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실로는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직후 성막이 세워진 곳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실로의 모습과 실로에서 진행된 발굴 현장의 일부입니다. 이곳은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실로에 새로 건설된 이스라엘 정착촌입니다.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 성막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안가 아팍 근처로 옮겨져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교훈을 얻었고, 성막은 유다 남부 서쪽 해안가에 있는 벧 세메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산악 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망루입니다. 이 망루가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 망루 꼭대기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에서 파낸 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밧고랑 끝에 돌담을 쌓아 흙이 다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 그 자리에 포도나무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망대가 필요할까요? 수확철에는 수확물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망대는 단순히 망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철에는 사람들이 수확물을 보호하기 위해 밤에 망대에서 잠을 자는 역할도 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산악 지대는 바로 북쪽에 있으며, 므낫세 산악 지대에는 몇 가지 주요 지형적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 에발산과 게리짐산, 또는 정확히는 에발산과 게리짐산이 있는데, 이 산들은 매우 중요한 도시인 세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세겜은 족장 역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 그는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겜에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다. 세겜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세겜은 에발 산과 게리짐 산 사이에 있습니다. 또한, 세겜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나할 세겜입니다.

나할은 히브리어로 강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계곡에 더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할은 세겜에서 발원하여 해안까지 이어집니다 . 이 나할은 세겜과 서쪽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사마리아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결국 북왕국이 분열된 후 그 왕국의 마지막 수도가 되었습니다 . 사마리아는 아합이 사들인 외딴 언덕이었는데, 그는 그곳에 궁전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곳을 산 사람은 그의 아버지인 옴리였습니다.

평원 이 있고 , 북부의 수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카르 평원 입니다. 이곳은 중요합니다.

세겜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모든 일은 므낫세 지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북쪽의 수도들을 언급했습니다. 세겜을 예로 들었죠. 그곳이 첫 번째 수도였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이 분열되고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차지했을 때, 그는 남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는 대조적으로 북왕국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는 당연히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도시에 수도를 정하고 싶었기에 세겜을 선택했고, 세겜은 북왕국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방어하기 쉬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할 세겜, 즉 서쪽으로 통하는 이 길은 상업뿐만 아니라 군대의 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 여로보암은 얼마 지나지 않아 디르사로 수도를 옮겼는데, 그곳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좀 더 고립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옴리와 아합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수도를 원했습니다. 견고하고 요새화되어 있으면서도 서쪽, 특히 북쪽의 상황과 잘 연결되는

도시, 특히 페니키아 왕국 전체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도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매우 중요한 도시였던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 수도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선 에발 산과 게리짐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세겜이 있으며, 그곳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산들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에발 산과 게리짐 산 사이에 있는 세겜 지역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의식을 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게리짐 산에서는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과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각각 게리짐 산과 에발 산에서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세겜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는 산악 지대입니다. 또한 수도인 티르자와 사마리아도 이곳에 있으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신 장소도 바로 그곳입니다. 이처럼 므낫세 산악 지대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역사적 주요 사건들을 간단히 되짚어보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이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을 모아 언약을 갱신합니다(여호수아 8장과 24장). 특히 24장에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는 위대한 연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세겜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도가 세겜에서 티르사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옮겨진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페니키아의 영향력이 느껴집니다. 제 아내 일레인 필립스가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룬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 사마리아 지역(당시에는 세바스티아라고 불렸습니다)에 헤롯 대왕이 그의 은인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 거대한 신전을 지었다는 사실도 언급해야겠습니다. 세겜, 게리짐, 에발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산맥 사이의 풍경뿐만 아니라, 여기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세겜이 있습니다. 물론, 세겜은 지금의 나블루라는 현대 도시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야 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서쪽을 보면 해안으로 이어지는 이 고개가 바로 보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했던 나할 세겜입니다.

이쪽이 케리짐 산이고, 에발 산의 일부가 보이시죠. 가을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작물은 수확이 끝났고, 양들이 와서 남은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게 보이시죠?

농부와 목동 사이에는 아주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양들은 그곳에서 남은 풀을 뜯어 먹고 그루터기도 먹습니다. 하지만 양들이 임대료를 내는 셈입니다.

그리고 양치기들은 거름 형태로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이 거름은 농부가 밭을 갈고 나중에 곡물을 심을 때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농부와 양치기 사이에 아주 좋은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양치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표현을 써도 될까요? 양들이 남긴 것은 농부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을의 모습이고, 이것은 겨울비가 내린 후 봄의 모습입니다.

짜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 사진 에서는 에발 산이 좀 더 잘 보이네요. 고대 유적지는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뻗어 있는 고개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꽃과 여러 가지 작물, 채소가 가득한 들판이 보이시죠? 시카르 평야는 우리 발아래, 오른쪽에 보이는 평평한 지역입니다. 세겜 유적지, 여기서 '유적지'는 세겜의 고대 유적을 말하는데, 왼쪽이 바로 그곳입니다.

고개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티르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티르자는 이 와디, 즉 와디 베타를 따라 몇 마일만 내려가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티르자는 소위 파라 계곡을 통해 요르단 계곡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레인이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서 북쪽 으로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지역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매우 구릉진 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쪽 지역만큼 험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구릉이 많고 비도 많이 오며 이슬도 많이 내립니다.

교통은 유다보다 조금 더 편리하고, 살기에도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보다 지형이 더 개방적이어서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이 활발하지만, 적의 침략에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먼저 멸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 중 하나는 남왕국이 북왕국보다 더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영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리적,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사마리아 땅을 정복하는 것이 유다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므낫세 산맥을 통과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처럼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마리아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궁궐이 있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나면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에 아합이 지은 웅장한 궁전이 있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또한 그 궁전의 특징 중 하나가 상아였다는 것도 읽었습니다. 상아는 보석함, 귀걸이 등 여러 가지 물건에 사용되었습니다.

상아는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러한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곳은 궁궐 지역입니다. 이곳은 강력하게 요새화되었지만, 흥미롭게도 고고학적으로 아모스가 언급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아모스는 북왕국의 우상숭배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에는 궁궐뿐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 시대에 헤롯 대왕이 통치할 당시, 그는 로마에 있는 자신의 위대한 은인을 기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신전을 짓고 세바스테 라고 불렀습니다. 세바스테 는 아우구스투스의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이곳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입니다. 이 계단은 아우구스투스 신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헤롯은 결코 일을 작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실 수 있도록, 기둥 받침대 하나를 자세히 봐주세요. 이 받침대는 사실 거꾸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받침대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사원 전체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해 보시려면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 받침대에 아내가 쪽 뻗어 있죠. 그러니까 헤롯은 웅장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세바스티안, 즉 세바스테, 다시 말해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배가 카이사레아에 도착하여 서쪽 지평선에 해가 낮게 떠 있을 때에도 헤롯이 세바스테의 산악 지대에 세운 웅장한 성전의 빛이 30마일(약 48km) 떨어진 곳까지 보일 정도였다고 전합니다. 다음 강연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산악 지대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지리학, 두 번째 강연인 산악 지대에 대한 페리 필립스 박사의 강의였습니다.